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10월 12일 ~ 10월 18일)

월	박정준 요한크리소스토모, 이진숙 수산나, 전인영 데레사, 김미란 요안나, 안현자 베로니카, 이춘미 율리아나, 이채연 안나, 최다인 리디아, 박인영 엘리사벳, 임정미 체칠리아, 이대현 바르바라, 고태석 베르나르도, 김상래 베드로, 김희정 카타리나, 김대복 스테파노
화	윤다미 안나, 양석준 요셉, 민은혜 가브리엘라, 윤성훈 임마누엘, 강연순 마리아, 박정임 체칠리아, 김효진 아가타, 홍선희 체칠리아, 남수현 체칠리아, 최예린 마리아, 김장원 세례자요한, 강상택, 이계옥 베로니카, 유해영 사도요한, 이춘금 유스티나
수	김영자 안젤라, 임영숙 실비아, 신명숙 이사벨라, 허정옥 바오로, 현순자 체칠리아, 김응빈 아우구스티노, 한현숙 제르투르다, 유춘실 레미지오, 최금희 율리아나, 정재후 라자로, 정세영 안토니오, 변두애 아녜스, 송지훈 세례자요한, 전향선 카나리나, 이봉우 베네딕타
목	이정은 라파엘라, 신은순 아녜스, 윤명순 엘리사벳, 이창기 클라라, 박종술 도미니코, 박화연 루치아, 유숙자 리디아, 장춘금 안젤라, 최문자 안젤라, 김은제 아녜스, 고해규 바르나바, 김성문 모세, 이귀영 바실라, 김경화 베로니카, 이정민 안나
금	김갑순 루치나, 전지은 체칠리아, 이희은 마리스텔라, 이수옥 베로니카, 김응희 체칠리아, 정윤식 고르넬리오 신부, 백승자 아가타, 남궁순자 마리아, 권명희 알비나, 강상대 도미니코, 문천심 마리아, 최인정 마리아, 김혜령 안젤라, 이용범 프란치스코, 안승옥 도미니카
토	오지만 요셉, 노보석 율리아나, 오명성 로마노, 김현규 바오로, 손달수 안나, 최순임 마리아레지나, 이인자 잼마, 김순분 요세피나, 홍문숙 베로니카, 장현숙 라파엘라, 장연희 안젤라, 정해자 유스티나, 문숙자 데레사, 이선자 한나, 김경화 안나
주일	명세식 크리스티나, 신정자 미카엘라, 김미경 글라라, 박지수 데레사, 박호석, 안길순 율리타, 남상균 요셉, 최순분 그라시아, 모춘희 이레네, 정순복 헤드빅, 임옥 엘리사벳, 김정숙 안나, 유길례 마리아, 노정혜 마리아, 심추자 막달레나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5명 중 주일미사 200명 참례 / 참례율 : 27.97%

평일미사	토 (10/3)	월 (10/5)	화 (10/6) 내촌 / 본당	수 (10/7) 본당 / 송정	목 (10/8) 송정 / 본당	
	18명	16명	19명 / 18명	18명 / 10명	7명 / 24명	
주일미사 (10/4)	내촌공소	송정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1명	23명	31명	22명	79명	24명



2026년 전교의 달 특별 담화

하느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나의 신앙 이야기’로 하느님을 전합시다

1926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일깨우시고자 전교 주일을 제정하셨고, 올해 우리는 제100차 전교 주일을 맞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제100차 전교 주일 담화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과 선물에 따라 복음화 사명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2026년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선교하는 제자로서 하느님 체험의 기쁨과 감사가 담긴 ‘나의 신앙 이야기’로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합시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는 우리가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을 알고, 관계들의 회심, 과정들의 회심, 유대들의 회심을 이루어,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으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문서」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와 시노드적 회심을 실천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모두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견진·성체 성사)로 양성을 받아야 하고, 주일 성체성사 때마다 시노달리타스의 세 축인 친교와 참여와 사명(선교)을 새롭게 합니다(최종 문서, 142항 참조). 주일 미사의 말씀과 성찬의 두 식탁에 참여한 신자들은 강복과 파견을 받아, 삶에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더욱 힘차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종 문서」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초기 공동체가 오순절의 새로움에, 곧 성령 강림의 새로움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선교하는 제자들의 백성, 시노드 교회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며 마무리합니다(155항 참조).

사실 성모님께서는 선교하는 제자들과 선교사들의 본보기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께서는 서둘러 길을 떠나 예수님을 전하러 가셨습니다(선교사가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난다면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자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선교사가 예수님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기쁨과 성령의 현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전하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끝으로 성모 마리아께서 마니파캇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루카 1,46 참조)라고 하셨듯이 선교의 기쁨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 찬송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모님에 이어 엠마오의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 바오로 사도 등 하느님을 체험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에 앞서, 저마다의 삶에서 얻은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 이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쓸 때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기보다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는 “내가 천사를 만나 …… 하였노라.”라고 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49)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이야기’의 중심부인 ‘하느님 체험’ 이야기는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써 나갑니다. 또한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 자신의 삶을 짧게 쓰고, 하느님을 체험한 뒤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짧게 씁니다. 곧 ‘나의 신앙 이야기’는 1부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의 자신의 삶(도입, 짧게), 2부 하느님 체험(본론, 하느님을 주인공으로), 3부 하느님을 체험한 뒤 자신의 삶의 변화(결론, 짧게)로 씁니다. 이렇게 써 두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도 좋고, 이웃에게 전하기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는 우리가 모두 ‘선교하는 제자’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전교의 달에는, ‘나의 신앙 이야기’를 써 나가며, 우리 모두 복음의 사도가 됩시다. ‘신앙 이야기’로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합시다. 더 나아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각 교구 대회 동안 이루어지는 홈스테이와 본당의 날 등에서 ‘개인 성경 구절’과 ‘나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서로 증언합시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가운데, 함께 걸어나는 시노드 여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온 교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전교의 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복음선교위원회 위원장 장 신 호 주교



성산 갈바리아의 성십자가성당

SEONGSAN CATHOLIC CHURCH



우리들의 정성 연중제27주일

주일 헌금	1,112,000	주일헌금(송정)	180,000	교무금	2,735,000
양성, 복지, 원로	120,000	미래 기금	95,000	감사헌금	290,000

교무금 김중녀, 박인옥, 안유례, 이원일, 최원석, 소옥선, 정구호, 박순우, 윤영진, 박희명, 최은희, 김승례, 허연구, 조성근, 나철순, 김종광, 이명희, 박광열, 신성철, 신정호, 신명자, 김성엽, 정동주, 정하숙, 김부용, 서정화, 박희갑, 이원석, 전용기, 김은자, 김옥희, 이파랑, 김정자, 함연하, 지금예, 허점숙, 사정애, 권병연, 권복만, 문민자, 신명환, 박찬, 정현희, 고용녀, 김남수, 류재선, 양금례, 이정자, 최윤정, 주선옥

감사헌금 전용기(스테파노) 100,000 신오순(안나) 50,000 김하옥(카타리나) 20,000 이인열(울릿따) 20,000 김영희(헬레나) 1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10월 8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605,000	11,738,000
		약정 기부	1,930,000	159,800,000
		2차 헌금	800,000	10,779,950
		기타 수입	1,000,000	26,382,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8,520,000	206,312,326
		매일미사	13,820,000	105,250,120
		평화방송	8,910,000	258,487,209
		가톨릭 평화 신문	2,240,000	18,728,000
		가톨릭 신문	5,720,000	56,165,000
		ARS 후원		1,125,000
기타 후원	100,000	22,012,000		
합 계		53,645,000	876,780,068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25,300,000	77,651,200
		모금 준비비	2,908,000	10,703,760
		봉사자 지원비		2,804,910
	합 계		28,208,000	134,761,440
현 잔액		1,408,866,544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5세대 189,220,000원 중 159,800,000원 납부 (납부율 84.45%)

정동주, 정하숙, 이원석, 권오순, 김후태, 김승옥, 김기웅, 류재선, 황석조, 최삼순, 조순미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340,000원 이순희, 신상순, 안영미, 길종식, 김은숙, 우정림, 민옥동, 김정빈, 이상은

죽림동성당 170,000원 이효숙, 강영심, 함이안

교동성당 1,340,000원 이순정, 김복환, 전형배, 김미영, 김영숙, 허민영, 김태형, 황연진, 이유찬, 송경화, 장금자, 김송철, 황정선, 김귀자

철원성당 16,670,000원 김미경, 박지수, 장옥엽, 김용채, 김순계, 임운섭, 이미정, 안원식, 김은식, 이명식, 박정희, 김숙자, 이승수, 김동일, 김윤심, 전중근, 조윤기, 이해경, 박순영, 함경자, 김옥선, 진용화, 장영숙, 김현옥, 박정임, 김은숙, 김은지, 안성모, 이정애, 임정빈, 박희순, 이성례, 신우철, 김영애, 최다정, 이성자, 이길남

기타후원 배현숙

매일미사 변현식, 이철순, 권준서, 최재분, 권미영, 임광자, 김정희, 박희경, 이성룡, 김은하, 장은순, 이윤배, 유선영, 이영숙, 최희정, 김금분, 정성훈, 이완숙, 백의숙, 이강호, 신용택, 이현숙, 안종훈, 김문선, 이하린, 임수남, 김옥출, 김다훈, 나순옥, 신혜숙, 김홍래, 길세용, 서양선, 김경희, 한수진, 손혜선, 김유철

평화방송 구본숙, 김기현, 박준연, 이진숙, 김영기, 박청옥, 우창훈, 윤달님, 윤해, 안소범, 윤지민, 김수자, 길영주, 송종만, 고숙자, 정순규, 이경애, 안영교, 김용일, 유충수, 김원자, 최은미, 조나라, 한태규, 박용진, 박명숙, 권영숙, 김계림, 김성진, 김정희, 홍석표, 최갑순, 김일, 김영남, 이보옥, 윤기복

가톨릭신문 박선규, 황인선, 노영임, 장상숙, 조효민, 성기정, 황봉철, 박영숙, 홍원기, 김미숙, 박정훈, 심동국, 조순재, 조철모, 이금주, 이숙영, 김중환, 조은미, 서옥윤, 고호림, 칸네라

가톨릭 평화 신문 문영수, 하정우, 윤정숙, 임선경, 여현미, 최안나, 이석룡, 이경선, 윤철중

기타수입 실리콘백 판매

지출

광고비 평화방송 홍보영상제작비 7,700,000 평화방송 9월 7,700,000 가톨릭평화신문 9월 3,300,000

가톨릭신문 10월 3,300,000 매일미사 12월 3,300,000

모금 준비비 ARS 유지관리비 88,000 대나무칫솔(4000개) 2,820,000

레지오 훈화 2-5.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께서는 교황령 「형언할 수 없으신 하느님」을 통하여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선포하셨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물론 성경은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신앙 교의의 출발점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을 취하시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교부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리아의 탁월한 신앙과 성덕을 인식하였다. 유스티노 성인은 하와의 불순명과 마리아의 순명을 대조하면서 마리아의 순명과 신앙이 이루어 낸 구원 업적을 인식하였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동반자라고 칭하였는데, 이 표현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조자로 보는 데 출발점이 된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중요한 협력자로 찬양한 것이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순명과 신앙은 마리아의 탁월한 성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것에 견주어 십자가 곁에 남아 계셨던 마리아에게서 용기를 보았으며, 마리아의 노래에서 드러난 겸손, 가난, 신앙의 충만함, 영적 인식, 하느님의 신비적 계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등의 덕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시메온의 예언과 엘리사벳 방문을 통하여 신앙의 어둠을 이겨 내고 정상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인식하였다..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성모신심, 20-21쪽>